

범어사 세계 禪문화체험타운 · 참선템플스테이



사찰전통문화체험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 선은 곧바로 깨달음은 의미합니다. 이 깨달음을 진정한 자기의 참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깨달아 진정한 자기의 참모습으로 돌아가려는 템플스테이, 이것이 선찰 대본산 범어사에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 주려는 참선 템플스테이입니다. 진정한 자아를 찾아 이고득락의 열반묘심을 깨닫게 하려는 목적을 두고 있는 새로운 모습의 참선 템플스테이, 일상생활의 온갖 불안, 공포 등 모든 번뇌를 떨쳐버리고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얻는 템플스테이, 삶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가장 슬기로운 지혜가 담겨있는 참선템플스테이, 선찰대본산 범어사에서만 느낄 수 있는 획기적인 수행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온갖 종류의 위기가 우리의

삶을 뒤 흔들고 있을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천년고찰 범어사에서 일상의 번뇌를 끄고 잠시 머물면서 참선을 통해 참된 자아를 찾았다면 일상 생활 가운데 늘 즐겁고 편안한 생활이 될 것입니다. 생노병사의 일을 뒤 집어가지 이롭고 낭 만가한 여유를 가지고 사는 삶을 한번 체험 해보시길 원하시겠습니까, 그 외에도 가족, 부부, 연배, 묵언, 산행 등 사찰 문화 프로그램이 있고 연수형태의 직장템플스테이와 수행을 겸비한 문화 프로그램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삶을 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참여 방법은 범어사 홈페이지, 전화, 팩스 등 다양하게 열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범어사 연수국장 해수 합장**

범어사 '세계 禪문화체험타운' 조성

선찰대본산 범어사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금정산의 풍부한 자연환경조건을 바탕으로 명상과 선수행은 물론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세계적인 禪문화체험타운을 조성합니다. 「세계 禪문화체험타운」과 함께 선수행의 도량인 범어사가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정신문화를 선도합니다.

禪문화 체험	
참선체험의장	템플스테이
불교수행의장	불자수행 체험
전통무예의장	불무도, 한방체험
전통문화 체험	
전통문화의장	전통문화예술체험
예술인 창작촌	음악, 미술, 문학, 전통공예
다도문화의장	차발경작, 다도문화
서화도체험의장	전통서도문화체험
명상 체험	
아외명상체험의장	아외명상체험
기공체험의장	기공, 요가, 단학수련 등

■ 홈페이지 : www.beomeosa.co.kr ■ 전화 : 051)508-3122~5 팩스 : 051)508-3229  
■ 담당 : 이승언(011-9511-1250)

대한불교 조계종 제14교구 본사 선찰대본산 금정산 범어사

해운정사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정기법회-진제대선사 법문

- 매월 음력 1일 초하루 법회(해운정사)
- 매월 음력 18일 지장재일 법회(해운정사)
- 매월 음력 8일 약사재일 방생법회(경주 금천사)

재가오계 수계식 및 바른 참선지도 대법회

- 연중행사로서 매년 음력 9월 보름날 봉행
- 재가오계 수계식, 연배, 수계침 수여
- 진제대선사 참선지도 법문
- 탑돌이 및 육법공양 행사

시민선방 안내

일반인을 위한 참선정진 프로그램을 여름, 겨울 각 석달 간 스님들 안거와 같이 시행합니다. 선(禪)에 관심이 있는 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안거 : 음력 4월18일~7월18일, 해운정사 하선원
- 동안거 : 음력 10월18일~1월18일, 해운정사 하선원

토요용맹정진

일반인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철야 참선정진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선(禪)에 관심이 있는 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매주 토요일 저녁 8시~새벽 3시, 해운정사 시민선원

만년위패 동참제사

저희 해운정사에서는 만년 조상위패를 모시고 절 역사와 같이 일 년에 세 번 아래와 같이 제사를 지내드리오니 많이 동참하시어 선망부모의 왕생극락을 기원하시기 바랍니다.

- 음력 1월1일(설날) ■ 음력 8월15일(추석) ■ 음력 9월9일(구구절)



부산 해운정사 전경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정사 금모선원 ☎문의 : 051)746-2256, 4812 / 홈페이지 : http://www.seon.or.kr

현대불교

불기 2549년(서기 2005년) 5월 18일 수요일(음력4월11일)  
제 526호(부록) buddhanews.com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범어사 설선대법회

5월 7일 오후 2시 회향 및 무차선회

설선열기 차별없는 법석으로 회향 (說禪)

진제 스님 법문 후 대중과 '범거량'

간화선 확산 위한 좋은 기회 '기대'

"한 손바닥으로 치는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철석! (뺨을 한 대 후려치다) 이제 들었지요."  
"....."

지난 1998년 8월 장성 고불총림 백양사에서 열린 무차선(無遮禪) 법회, 짧은 수좌가 백은선사의 '최수승성(隻手音聲)' 공안 이치를 방장 서승 스님에게 묻자, 어떤 나이든 거사가 순식간에 법석으로 뛰어내려 선문답에 나선 수좌의 뺨을 때려 화제가 된 법거량이다. 승속·나이·신분 등을 가리지 않고 공부경계를 파격적으로 내보이는 무차선 법회의 진면목이다.

이처럼 승속·남녀노소 구별 없이 깨달음을 점점하는 무차선 법회. 범어사·현대불교신문사 공동주최로 3월 5일부터 3개월간 열린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설선대법회'의 회향법회로 5월 7일 오후 2시 부산 범어사에서 봉행된다. 2002년 부산 해운정사에서 열린 이후 3년만이다.

법주로는, 한국 근대선불교의 거봉이었던 경허-혜월-운봉-향곡 선사의 법맥을 이은 진제 스님(통화사 조실)이 나서고, 전국 제방 납자와 재가불자들이 한 곳에 모여 법연(法宴)을 펼친다.

이번 무차선 법회는 특히 '진정한 선지식은 드롭고 영무 세 선객만 들고 있다'는 불교계의 우려를 해소하는 중요한 법회가 될 것으로 이목을 끌고 있다.

매주 4천여 명 넘는 인원이 범어사 보제루와 앞마당을 가득 메우며 선법문에 귀를 기울인 범어사 설선대법회는 간화선에 목마른 대중들에게 무엇이 간화선의 고갱이이고,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선용하는지를 풀어 주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매 법회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10대 선사가 간화선 수행에 대한 상세한 법문을 했고, 질의법사와 재가집의자가 대중을 대표해 질문, 간화선수행에 대한 청중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며 간화선에 대한 이해와 실질을 독려했다.

따라서 범어사 설선대법회를 결산하는 이번 무차선 법회가 '북(北) 송담 남(南) 진제'로 불리는 선지식 진제 스님이 법주사로 나서는 만큼 참가대중들의 안목을 띄워주며 간화선수행을 보다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글=김철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범어사 설선대법회 회향법석의 식순	
① 정진	② 개회
③ 삼귀의례·반야심경	④ 법주 소개
⑤ 청법계	⑥ 입장
⑦ 법문(50분) - 진제 대선사	
⑧ 무차선회 - 사회: 지환 스님 (조계종 기본선원장)	
⑨ 폐회사 -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	
⑩ 인사말씀 - 현대불교신문 김광삼 사장	
⑪ 수료증 수여	
⑫ 축가	
⑬ 공지사향	
⑭ 사후서원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02)2004-8212



지면안내

- 무차선 법회란? 2면
- 진제 스님 회향 법문 3·4·5·6면
- 선법문 듣기의 포인트는? 6면
- '문법오칙(問法五則)'이란? 7면

인가(認可)를 중시하는 선종. 무차선 법회는 화두참구로 깨달음을 얻는 간화선 수행전통에서 중요한 공부절점 마당이 된다. 수행자의 화두타파 유무, 깨달음의 증득 여부 등을 범거량으로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범거량은 무차선 법회에서 핵심이 된다. 그럼, 무차선 법회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단연 선문답을 통한 자기 공부됨

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자칫 범거량이 깨달은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알쏭달쏭한 범거량이 수행자 스스로에게 '공부 길' 점검을, 깨달음의 기연을 준다. 무차선 법회의 의의, 범거량은 왜 하는지, 또 최근 봉행됐던 무차선 법회의 내용 등을 살펴본다.

# 승·속, 남녀노소 차별없는 법석

### ● 무차선 법회의 유래, 그리고 하는 까닭은

'무차'는 범어 'Panca-parisad' 또는 'Panca-varsi-ka-parisad'라 한다. 즉 승속·남녀노소·귀천의 차별 없이 일반대중들이 평등하게 법문을 듣고, 잔치를 열어 들건을 베푸는 일종의 법회의식이다.

원래는 인도에서 널리 행해졌는데, 아쇼카왕(BC. 268-232)과 같은 유력한 국왕들이 선지식들을 모시고 재법(財法)을 보시하는 자리에서 비롯됐다. 이런 자리에서는 자연스레 법의 차별 없는 논의가 이뤄져 '바른 법을 세우기 위한 대화의 장'으로 여겨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시대에 '무차회'를 열었다고 전해진다. 주로 이 법회를 통해 백성들의 어려움을 달래주고 민심을 수습하려는 의도에서 국가가 시주가 되어 베풀었다. <고려사>에 따르면, 940년(태조 23) 신홍사 공신당(功臣堂)을 신축할 때 무차 대회가 있었고, 1165년(인종 19)의 궁중 무차 대회, 1216년(고종 3) 10월 미륵사 공신전 중수 후 무차 대회가 열린 기록이 보인다.

근대에 들어서 개최된 무차 대회로는 스님의 도성을 입이 해제된 1896년, 한국과 일본 스님들이 경성에서 수일에 걸쳐 열었다고 <조선불교통사>는 전하고 있다.

### ● 최근 열린 한국의 무차선 법회는

백양사 고불총림이 1998년, 2000년, 그리고 부산 해운정사가 2002년에 조사선(祖師) 수행 풍토의 선양과 승속의 구별 없이 깨달음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무차선 법회를 봉행했다.

특히 고불총림 방장 서울 스님이 1998년에 봉행한 무차선법회는 지난 1912년 오대산 상원사의 한암 스님이 금강산 건봉사에서 연 이후 77년 만에 개최한 것으로, 사라진 무차선 법회를 복원했다는 점에서 불교계 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한국의 조사선 전통의 재확립'을 주제로 열린 고불총림 백양사의 제1회 무차선 법회는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서울 스님이 주창한 '참사람운동'에서 비롯됐다. 이 운동은 정신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조사선에 있고, 이를 통해 혼란과 갈등을 치유하자는 계기로

제방선원의 수좌들은 물론 세계 석학들도 다수 참가했다.

### ■ 고불총림 백양사 무차선법회

1998년 8월 백양사 고불총림이 마련했던 '제1회 국제무차선회'에서는 불질문명의 극대화도 인류가 겪고 있는 위기에 한국불교가 어떻게 빛을 던져줄 것인가를 집중 논의했다. 법회는 서용, 진제 스님 등 당대 선지식이 동참한 한국 고승대법회, 5개국 15명의 불교 석학들이 참가한 국제학술회의 등 다양한 행사들로 진행됐다.

특히 한국고승대법회에서는 전국 선원의 수좌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서용, 해인총림 방장 해암, 해운정사 조실 진제 스님 등이 법문을 해 한국 조사선 전통의 복원을 선언했다. 또 조사선 전통과 불성, 불교적 깨우침 등에 대해 조망하고 원단과화시대에 있어 선불교의 현대적 의미를 논의한 국제학술회의는 인터넷으로 생중계돼 세계에 한국선불교를 알렸다.

2000년 8월에 열린 제2회 무차선 법회 때도 조계종 원로의원 도원, 조계총림 방장 보성 스님 등 원로 고승을 비롯해 사부대중 6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성황리에 거행됐다. '참사람 결사의 새로운 세계'를 주제로 열린 이날 법회에서는 서용, 진제 스님이 조사선 정신으로 남북통일과 세계평화, 대자연의 조화 등을 이루자는 법문이 이어졌다.

### ■ 해운정사의 '한·중·일 국제 무차선법회'

백양사 '참사람 무차 대법회'를 계승·발전시킨 부산 해운정사의 '한·중·일 국제 무차선 법회'는 부처님의 심인법(心印法)인 조사선 전통을 확립하는 법석이었다. 서용, 진제 스님을 비롯해 중국 백림선사 방장 정해 스님, 일본 입제종 도묘사파 대보리사 관광 종현 스님 등이 법주로 나섰고 전국선원수좌회, 전국선원비구니선문회 등이 공동 주최해 명실상부한 설선의 장이 되었다.

'21세기 선으로서 참나를 찾자'를 주제로 열린 무차선법회는 무엇보다도 선의 대중화로 인류 정신문명에 새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선불교 역사상 동양 3국의 불교계 거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무차선 법회를 연 것 자체가 처음인데다, 3국의 불교의 수준을 점검하는 자리였다는 점 때문이었다.

### ● 무차선 법회가 주는 가르침

무차선 법회의 핵심은 범거량에 있다. 범거량은 일반적으로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이뤄지는 것으로, 제자는 자신의 깨달음의 경계를 드러내고 스승은 제자의 공부됨됨이를 점검한다. 범거량은 또 이미 깨달음을 얻은 선사들은 깨진 법을 서로 확인하기도 한다. 그래서 범거량을 일반적으로 '선문답'이라고 한다.

범거량의 방식은 '즉문즉답'으로 진행된다. 한 치의 양보도, 알음알이도 끼어들 틈 없이 치열하다. '할' (囑: 깨우쳐주기 위해 '억' 하고 큰 소리를 지름)과 '방' (條: 죽비나 손으로 일격을 가해 깨우침을 주는 행위)까지 날린다.

범거량의 이 같은 '과격성'은 '응병여약(應病與藥)'의 원리에 있다. 즉 말, 행동, 소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자가 갖고 있는 병(의심)에 맞춰 약(점검)을 주는 것이다. 상대방의 근거에 따라 직지인심의 기연을 제자에게 만들어 주는 범거량은 이 때문에 무차선 법회의 핵심이 된다.

무차선 법회는 무엇보다도 수행자에게 화두참구의 필수 조건인 3심(의심, 신심, 발심)을 일으킨다. 스승이 제자에게 발심의 기회, 신심 증대, 의심 해소 등의 기폭제를 준다. 이를 통해 공부의 진척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 같은 무차선 법회가 주는 가르침은 중국 황벽 선사가 백장 선사의 뺨을 후려친 '백장야호(百丈野狐)' 공안에서도 엿볼 수 있다. 대중들을 모아 무차 법회를 연 백장 선사가, 여우가 된 한 노인으로부터 "저는 과거 오백생 전에 어느 학인이 '수행인은 인과에 떨어지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묻는 질문에 '안 떨어진다'고 답해 여우가 됐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수행인은 인과에 떨어지는가 안 떨어지는가'란 질문을 받는다. 이에 백장 선사가 '인과에 어둡지 않으리라(不昧因果)'라고 하자 노인은 그 말끝에 깨달음을 얻었다.

저녁에 백장 선사가 이 인연을 말하자 황벽 스님이 "옛 사람이 잘못 대답해 오백생 동안 여우의 몸이 됐는데, 만약 잘못 대답하지 않았다면 무엇이 됐을까"하고 묻자, 백장 선사가 "앞으로 가까이 오라, 그대를 위해 가르쳐 주겠다"고 답했다. 황벽 선사가 가까이 가서 백장 선사의 뺨을 한 대 후려쳤다. 그러자 백장 선사는 박수를 치며 "과연 그렇구나. 오랑캐의 수염은 붉다더니 붉은 수염오랑캐가 있구나"라고 했다.

백장 선사의 이 범거량은 황벽 선사에게 강한 신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차선 법회에서 범거량이 주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 김철우 기자



지난 2002년 부산 해운정사에서 열린 '한중일 국제 무차선 법회'에서 진제 스님이 법문을 하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 법을 물을때 지켜야 할 예의와 규칙

말이라는 것은 소리의 높낮이에 생각의 차이를 담아 주고 받는 소통의 방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에는 말의 규칙이 있다. 생각을 소리에 담는 규칙이 있고, 소리로부터 생각을 다시 걸러내는 규칙이 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이름이나 소리와 소리, 이름과 이름 등을 연결하는 규칙, 어법들이 있다. 이처럼 말을 이용한 소통에 규칙이나 약속들이 작용하는 까닭에, 말에는 언제나 오해가 따라 다닌다.

을 통해서 충분히 입증되었다. 대중이 모여 선지식에게 묻고 대답하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차(差)가 개입할 수 밖에 없다는 경향이있다. 모든 경전은 '여시아문'으로부터 시작하여 '수순근기 신수봉행'으로 마감을 한다. 근거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는 뜻이다. 근거가 서로 다른 대중들이 모여 이야기를 시작하면, 근거 자체가 '막힘'의 원인이 된다. 갇힌 대로 묻고 갇힌대로 답하다 보면, 소통은 사라지고 주장만이 남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모임이라는 형식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따르기 마련이다. 심한 경우 나쁜 의도가 개입하기도 했다.

을 따르는 것처럼 서로 떠날 수가 없는 법이나 나쁜 짓을 하지 말도록 해라."고 하였다. <사십이장경>

부처님 당시에도 이처럼 약의를 가지고 부처님을 시험하던 무리들이 있었다. 경전에 담겨 있는 가르침의 형식에는 이런 경험들이 담겨 있다. '막음이 없는 마음'의 전통이라고나 할까.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전통이 있다. 강

식의 말씀을 받아 들이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지 말 것. 5. 막어란고문(莫語亂故問): 횡설수설하여 난잡하게 묻지 말 것.

이들 선지식의 입장에서 풀어 놓은 불응오처(不應五處)라는 규칙도 있다. 부처님이나 선지식도 시험 삼아 묻는 말, 의심 없이 묻는 말, 참회 없이 묻는 말,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 주장을 바탕으로 묻는 말, 난잡한 말로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법오칙(問法五則)**

1. 막시문(莫試問) 시험 삼아, 선지식을 떠보기 위해 묻지 말 것.
2. 막무의문(莫無疑問) 실제로 의심이 난 바 없이 가설, 가정해서 묻지 말 것.
3. 막불위회소범고문(莫不爲悔所犯故問) 자기가 범할 허물을 참회하는 바 없이 묻지 말 것.
4. 막불수어고문(莫不受語故問) 선지식 말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주장만 하지 말 것.
5. 막어란고문(莫語亂故問) 횡설수설하여 난잡하게 묻지 말 것.

부처님께 서, "어떤 사람이 내가 도를 지키고, 대자 대비를 실천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내게로 와서 (시험 삼아) 부처를 모욕했다. 내가 묵묵히 대답하지 않자, 그도 모욕을 그만 두었다. 그래서, '그대가 다른 사람에게 예물을 주었을 때, 그 사람이 받지 않는다면, 예물은 그대에게로 돌아오지 않겠는가?' 라고 물었다. 그는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 내가 '그대가 이제 나를 모욕했는데,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그 허물이 그대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된다. 소리가 메이리로 돌아오고, 그림자가 몸

경전, 곧 부처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1. 막시문(莫試問): 시험삼아 선지식을 떠 보기 위해 묻지 말 것.
2. 막무의문(莫無疑問): 자신이 실제로 의심을 해 보지도 않고, 짐작하거나 가장해서 묻지 말 것.
3. 막불위회소범고문(莫不爲悔所犯故問): 자기가 범한 허물을 참회하지 않고 묻지 말 것.
4. 막불수어고문(莫不受語故問): 선지

무차선회도 설선법회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무차의 차, 막음이 없는 마음'의 형식에 대하여 생각을 틀어켜 보게 된다. 대중들이 선지식과 맞설 수 있는 희유한 기회, 이 기회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형식들이다. 무차선회나 설선법회는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던 하지만,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형식들이다. 문법오칙(問法五則)과 같은 전통 속에서 새삼 선인들의 지혜를 느끼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오윤희(본지 편집위원)



# 범어사 설선대법회 10대 선사들의 생생한 법문을

집에서 차에서  
CD와 카세트 레이프를 듣고 보세요!  
제작 : 범어사 · 현대불교신문사 / 구입문의 : (02)737-0695(현대불교신문사)

# 답처를 알면 주장자를 부치리라

만신다.”라고 한 것은 또 어떤 진리의 한 모퉁이를 드러낸 것인가?

이 세 분의 답처를 아는 이가 있을 것 같으면 금일 산승이 이 주장자를 부치리라.

만약 산승이, 방거사 일가족이 고준한 법문을 한 마디씩 할 적에 동석했더라면 이 주장자로 각각 20방망이씩 때리리라.

만약 “방거사 일가족이 고준한 법문을 토해 뱉으로써 무수한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의 눈을 열게 하였는데, 스님은 무슨 장치가 있어서 각각 20방망이씩 때린다고 하십니까?” 하고 묻는 이가 있을 것 같으면,

이월한식청명후(二月寒食清明後)에 녹수지상황앵제(綠樹枝上黃鶯啼)로다

이월 한식 청명 후에 푸른 나뭇가지에는 노란 피코리가 아름답게 울고 있구나.

지금으로부터 한 80년 전입니다. 경기도 양주에 망월사라는 좋은 선방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삼십년 결사

를 하자. 삼십여 년 간 마음에 내려가지 않고 정진해서 대오견성을 하자.” 해서, 전국에서 밤심한 수좌 3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용성 대선사를 조실로 모시고 석우 선사를 선택으로, 운봉 선사를 입승으로 모시고 멋진 회상을 열어 정진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결제 중 반살림이 도래하여 조실인 용성 대선사께서 법상에 올라 법문 하시기를,

“나의 참모습은 삼세(三世), 과거·현재·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보지 못함이고, 역대의 무수 도인들도 보지 못함이니 여기 모든 대중은 어느 곳에서 산승의 참모습을 보려는고?”

하니, 운봉 선사가 일어나서 “우리 독 속에 몸을 감췄습니다.” 하고 멋진 답을 하셨습니다.

만약 산승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빗장 관자(闕字) “관(關)”이라고 답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운봉 선사가 “우리 독 속에 몸을 감췄습니다.”라고 답을 하자 조실인 용성 대선사께서는 아무 말 없이 법상을 내려와 조실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대중들은 세 분의 답처를 바로 붙지

않았다. ‘우리독 속에 몸을 감췄다’ 함은 어떤 뜻이며 빗장 관자 ‘관’ 함은 어떤 뜻인가? 또 법상을 내려와 말없이 조실방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떤 뜻인가?

이 세 가지 법문에 바로 답하는 이가 있을 것 같으면 산승에게 묻는 것을 허락하거나, 만약 바른 답을 못하면 진리의 문답에 있어서 문문서답을 할 것이며 사(柵)와 정(正)을 가릴 눈이 없는 것이니 몸을 자각이 없었이로다.

대중은 이 세 가지 법문을 이르고 일러보라!

(양구(良久:한참을 묵묵히 앉아있음)하신 후에)

산승이 두 팔을 걸어붙이고 천하대중에게 이 세 가지 법문에 대해서 답을 하리라.

(직접 답을 하신 후에)

진리의 문답은 이로써 마치고 선(禪)의 상식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는 이가 있으면 물시오.

(주장자로 법상을 한 번 치시고 하좌하시다)

법어도 어(語)인 바에야, 말의 형식을 따를 수 밖에 없다. 어떤 글자는 사람의 목소리를 가리킨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해지는 말소리를 가리킨다. 글자만으로 따지자면 법을 말소리를 통해 전한다는 뜻이었다. 물론 법어에도 형식이 있다.

종문제일서(宗門第一書)로 꼽히는 <벽암록(碧巖錄)>은 법어의 정형을 보여준다. 벽암록은 수시(誦示)와 본칙(本則), 본칙에 대한 송(頌), 본칙과 송에 대한 평창(評唱), 작어(著語) 등으로 구성된다.

벽암록은 100개의 본칙(本則)을 모아 놓은 책이다. 따라서 본칙이 벽암록의 중심이 된다. 본칙이란 수행자들이 믿고 따라야 할 법칙을 말한다. 옛 선지식들이 남겨 놓으신 말소리의 흔적들이기 때문에 고칙(古則)이라고도 한다. 수시(誦示)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의 일종의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다. 벽암록에는 수시가 달린 것도 있고, 생략된 것도 있다.

벽암록의 근간은 옛 스님들의 어록으로부터 골라 놓은 100개의 본칙과 이에 대한 설두 스님의 송(頌)이다. 고칙에 대한 송이라 하여, 송고(頌古)라고 한다. 송이라고 했으니 노래의 형식을 가리킨다. 고칙에 대한 느낌을 노래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평창은 본칙이나 송에 대한 설명이다. 고칙이 나오게 된 배경 등을 논리적으로 소상하게 설명한다. 작어(著語)는 덧붙여 놓은 말이라는 뜻이다. 본칙이나 송 따위에 한 두 마디의 짤막한 평가를 붙여 놓은 것을 가리킨다. 평창과는 달리 이해하기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형식을 갖고 있다. 일반 사람들이 선어를 어렵고 황당무계하게 느끼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선사들의 법어는 대개 이와 비슷한 형

## 선법문 듣기의 포인트는?

식으로 구성된다. 맨 앞에 간단한 수시를 달고, 옛 스님의 고칙을 들어 준다.

수시와 고칙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법어를 끌어 가며, 중간에 송을 인용하기도 하고, 직접 지은 송을 달기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어를 덧붙인 후 법어를 마무리한다.

이와 같은 형식은 오래 된 전통으로써, 현대의 법어들도 상황에 따라 가깝이 있지만, 전체적인 골격은 대개 전통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굳이 선적인 법어가 아니라고 해도, 스님들 법문에 의해 한문 계승이나, 선지식

을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담겨 있다.

현대인들에게 이런 형식은 매우 낯선 형식이다. 형식을 떠나 한문 투의 노래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말장난 같은 작어는 황당하기까지 하다. 중간중간 인용하는 선사들의 일화는 그래도 좀 알아들을 법도 하지만, 여러 차례 비슷한 일화들을 반복하다 보면, 지루하기도 하고 도대체 왜 옛날, 그것도 우리나라 스님도 아닌 중국 스님들의 일화를 반복해서 이야기 하는지 어리둥절해진다.

## 법어는 수행과 깨달음을 전제로 들어야 한다

들에 대한 일화들을 인용하곤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전통의 흔적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형식이 오랜 세월을 걸쳐 전통으로 자리를 잡은 까닭은 그런 형식 자체에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이다. 선적인 가르침을 퍼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형식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안(公案)을 공안, 곧 관공서의 공문서라고 부르는 까닭은, 그 이야기에 공문서와 같은 강력한 권위를 부여하려 했기 때문이다. 본칙이라는 표현도 비슷하다. 수행자들이 지키고 따라야 할 권위 있는 법칙이라는 뜻이다. 선의 가르침은 이처럼 선지식의 권위로부터, 선지식의 권위를 믿고 따르는 신심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오리무중의 표현이나 파격적인 발상은 수행자들을 자극하여 의심을 불러 일으

키다. 법어의 형식 안에는 이처럼 가르침을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담겨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형식의 법어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현하기도 한다. 구태의연하다고 불평을 한다. 조리 있고 체계적인 법문을 바란다. 법어나 법문도 현대인들을 위해 현대화되어야 한다고 한다.

고칙에 대한 송이나 평창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형식은 선문의 오래된 전통이다. 전통이 깊은 만큼 선적인

법어의 경우, 이 같은 형식을 따르는 편이 가장 손 쉽고,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선 수행을 하는 경우, 선의 특성상 직 간접적으로 과거 수행자들의 어록에 접하는 기회가 많다.

전통적인 어록들은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해도 역시 특정한 형식과 편제를 따르고 있다. 어록을 읽기 위하여는 이러한 형식과 편제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러한 형식이나 편제는 어록의 이해를 위한 전제조건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수시를 통해 현실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문제에 관련된 고칙을 제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논지를 전개해가는 전통적인 형식은 매우 강력한 설득력을 보여준다.

이 같은 법어 형식이 낯설게 여겨지는 가장 큰 원인은 물론, 이런 형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형식의 전통이 흐트러져 들쭉날쭉이 되어 버린 것에도 원인이 있다. 왜 그 자리에 그 말이 있어야 하는지 깨달을 못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법어는 논설문이나 수필 따위의 형식이 아니다. 수행을 전제로 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 말이다. 수행이나 깨달음을 전제로 듣거나 읽어야 한다.

이처럼 선사들의 법어를 듣거나 읽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먼저 법어의 형식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법어사 설선대법회의 경우, 법어를 체득하여 인터넛으로, 지상으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다. 법어의 가르침으로 바로 들어가기에 앞서, 법어의 형식을 눈 여겨 보아 두는 것도 법어를 읽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다.

오윤희 (본지 편집위원)

# 禪은 지혜의 보배칼 완성하여 다생의 무명초 베어내는 것

## 무차선 법회 범주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



### 진제 스님 약력

- 1931년 경남 남해에서 출생
- 1954년 남해 해관암에서 석우 선사는 은사로 출가 득도
- 1957년 통도사에서 구족계 수지
- 1967년 향곡선사로부터 법을 인가 받아, 경허-혜월-운봉-향곡 선사로 전해 내려온 법맥을 이음.
- 석가어래 부촉법 제 79법승
- 1971년 해운정사 창건.
- 1979년 해운정사 금도선원 조실 (現)
- 1991년 선학원 이사장, 중앙선원 조실 역임
- 1993년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증명 (現)
- 1994년 팔공산 동화사 금담선원 조실 (現)
- 1996년 대한불교 조계종 기본선원 조실 (現)
- 1999년 경주 금암사 창건
- 2000년 문경 봉암사 조실
- 2002년 국제무차선대법회 범주
- 2003년 대한불교 조계종 원로의원 (現)
- 2004년 대한불교 조계종 대중사 (現)

### 저서

- <둘사람 크게 웃네>
- <선 백문백답> (영화인친)
- <바다 위 앉은 바람 만년토록 새롭다> 등

(상당하시어 주장자를 들어 대중에게 보이시고)

요령불평(要平不評)이요 대교약잡(大巧若拙)이라 혹은지혹장(或指或掌)이라 의천조실(倚天照雪)이로다

대야해(大冶兮)여 마용불하(磨龍不下)요 양공해(良工兮)여 불식미휴(佛拭未休)로다 별법(別別)이여 산호지지방착월(珊瑚枝枝撐着月)이로다

평평하지 못한 것을 평평함을 요함이요 크게 공교로움은 옹졸함과 같음이로다 혹은 가리키고 혹은 때림이여 하늘을 비껴서 눈[눈]을 비춤이로다

큰 화로에는 보검을 갈고 갈아서 내려오지 아니함이요 일등 양공이여 보검을 갈고 뉘음을 쉬지 아니함이로다 특별히 다르고 다름이여 산호나무 가지가지에 달빛이 영롱함이로다

선(禪)은 지혜의 보배칼을 완성하여 단칼에 다생(多生)의 무명초(無明草)를 베어 없애이로다.

옛 도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빈한하게 살은 지혜가 짙음이요, 말이 아얌이면 털이 깊이로다.” 하셨습니다.

나고 날 적마다 촛세와 북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만민에게 앞서는 지혜의 보배칼을 잘 연마해서 못 성인의 대열에 들어가 지혜의 보검을 잘 솜지이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걸어왔고는? 열거하는 것을 잘 경청하소서.

경허 선사는 근대 백여 년 전의 대선지식인데, 명성이 전국에 분분하니 그 당시에 발심한 혜월 스님-경허 선사로부터 법을 받기 전까지는 ‘혜명’이란 법명을 썼다-이 경허 선사를 참방하여 여쭙기를,

“선사님, 저도 견성도인(見性道人)이 되고자 찾아왔습니다. 화두를 하나 내려 주십시오.”

하니, 경허 선사가 말씀하셨습니다. “허공이 법을 설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이 사대(四大) 몸통이 또한 법을 설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 다만 눈앞에 뚜렷이 밝은 한 물건이 있어서 법을 설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니, 그대는 이 물건(自前)의 고명(孤明)한 물건을 아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화두 삼아 잘 정진해서 알아오게.”

혜월 스님은 7년 동안 이 화두를 들고 오매불망 씨름하다가, 어느 날 짚신을 삼다 방망이로 신골을 치는 소리에 화두가 타파되었습니다.

공장 경허 선사를 찾아가니, 경허 선사께서 마루에서 정진하시다가 당당하게 들어오는 혜월 스님의 모습을 보고는 즉시 물음을 던지셨습니다.

“어떤 것이 목전의 고명한 한 물건이고?”

“저만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모든 성인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것이 혜명이고?”

이에 혜월 스님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몇 걸음 걸어갔다, 다시 서쪽에서 동쪽으로 몇 걸음 걸어가서 섰습니다.

“옳고, 옳다.”

경허 선사께서는 크게 기뻐하시며 혜명 스님에게 ‘혜월’이란 법호(法號)를 내리고 법을 부촉하셨습니다.

혜월 선사는 경허 선사로부터 인가 받은 후 남방으로 내려오시어 풍도사, 선암사 등

4면으로 이어짐

# 그대는 눈앞의 한 물건을 아는가

지에선 선법을 크게 선양하였습니다.

해월 선사께서 부산 선암사(仙岩寺)에 계시 때의 일입니다.

많은 대중이 모여 살다 보니 항상 식량이 부족해 선사께서는 늘 논 개간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한번은 일등 호답(一等好畲) 다섯 마지기를 팔아서 산중 논을 개간했는데, 여러 달 만에 겨우 세 마지기를 개간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섯 마지기를 팔아서 개간했으면 적어도 일곱여덟 마지기로 불려보아야 하는데, 왜 겨우 세 마지기에 개간하지 못했느냐?

일꾼들이 일하다가 게으름이 나면, “스님, 법문 좀 해 주십시오.”

하여, 한번 법문을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법문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절의 스님들이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스님, 일등 호답(一等好畲) 다섯 마지기를 팔아 세 마지기에 개간하지 못했으니, 이렇게 살림을 살다가는 대중이 다 굶어 죽겠습니니다.”

그러자 선사께서는 호통을 치셨습니다.

“이 소견머리 없는 사람들아! 논 다섯 마지기는 어디 갔어? 세 마지가 더 불어나지 않았느냐?”

누가 농사를 짓던 간에 다섯 마지기는 그대로 있고 세 마지기를 더 개간했으니 불어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듯 너른 세계를 사는 것이 깨달은 도인의 살림살이입니다.

선사께서는 연로하시도록 손수 시장을 보러 다니셨습니다.

하루는 절에 천도제가 있어 일꾼을 데리고 시장 보러 가시게 되었는데, 노변에서 콩나물 파는 아주머니가

“스님, 우리 콩나물 좀 사 주십시오.”

하면 한 통이를 사시고, 또 옆에 앉아 있는 이가

“우리 것도 사 주십시오.”

하면 또 사고, 또 사고 해서 정자 사이할 제물은 못 사고 절에 콩나물만 여러 통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니다.

해월 선사의 명성이 자자하자 신도들이 다투어 좋은 옷을 지어다가 선사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선사께서 그 옷을 입고 장에 나가시면, 거지들이 무심도인인 줄을 알고는 다가와서,

“선사님, 그 옷을 저희에게 좀 주십시오.”

하면 선사께서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입고 있던 옷을 먼저 벗어 주고 거지들의 옷을 받아 입고 오셨지요.

그래서 신도들이 옷을 지어 드리기가 바빴다고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행(行)입니다.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이 있고 ‘나’라는 상(相)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법입니다. 바로 이러한 행을 천진(天真) 영아의 행, 무심도인의 행이라고 합니다.

일체지하 당시에 새로 부임한 남 총독이, 낭방에 유명한 도인이 해월 선사라는 소문을 듣고, 하루는 수하 몇몇을 데리고 선사를 방문했습니다.

총독이 인사를 올리고는 해월 선사께 물었습니다. “스님, 어떤 것이 부처님의 법 가운데 가장 높고 깊은 진리입니까?”

“부처님의 높고 깊은 진리? 귀신 방귀에 털이 났지.” 귀신도 허무한데 귀신이 방귀를 똥다는 것, 더군다나 그 방귀에 털이 난 것이라고 하니, 대체 이 무슨 소리이고? 이것은 총독 아니라 총독보다도 지나가는 이라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 총독은 여기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갔습니니다. 남 총독이 해월 선사에게 방망이를 맞았다는 소문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까지 분분하니, 남 총독의 부하 무사 하나가 해월 선사를 혼내주려고 장검을 차고 찾아왔습니다.

구두를 신은 채 노크도 없이 해월 선사가 계신 방문을 박차고 들어와서는, 선사의 목에다 장검을 들이대었습니다.

“스님이 해월 선사입니까?” “그렇소. 내가 해월이요.”

대답과 동시에 선사께서는 손가락으로 무사의 등 뒤를 가리켰습니니다. 뒤에서 누군가 자기를 해치려는 사람이 있는가 싶어 무사가 급히 뒤를 돌아보는 찰나, 해월

을 포대를 지고 반쯤 일어서는 자세로 이 몸통이를 훌쩍 벗어버렸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숨이 떨어지면 앞으로 거꾸러집니다. 부처님 이후로 무수한 도인이 계셨지만 이렇듯 독특한 열반상을 보인 분이 드릅니니다.

시회대중은 무심도인 해월 선사를 알겠는가?

막위무심은시도(莫謂無心云是道)하라 무심유격일중관(無心有隔一重關)이로다.

무심이 진리의 극치이라고 말하지 말라 무심도 하나의 관문이 가리워져 있느니라.

마조 선사는 84인의 도인 제자를 둔 위대한 도인입니다.

하루는 마조 선사께서 백장(百丈) 스님을 시자(侍者)로 데리고 산골 저수지를 지나가는데, 저수지에서 놀던 오리들이 인기척에 놀라 휙 날아가 있습니다.

마조 선사께서 백장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저것이 무엇이고?” “들오리입니다.”

“어디로 날아가는고?” “저 산 너머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마조 선사께서는 대뜸 백장 스님의 코를 쥐어 세계 비틀어 버렸습니다. 백장 스님이

“아앗!” 하고 아파서 소리를 지르니, 마조 선사께서 “어찌 날아갔으리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일을 마치고 절로 돌아오자 백장 스님은 방에 들어가 문을 열어 잠고고는 나오지를 앉았습니다.

‘산 너머로 날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마조 선사께서는 어째서 코를 비틀었는고?’

이것이 의의식이 되어 일주일간 침식(寢食)을 잊고 의심삼매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일주일 만에야 마조 선사께서 코를 비튼 뜻을 깨닫고는 방문을 박차고 나와 조실스님 방 앞으로 달려갔습니니다.

“조실스님! 어제까지는 이코가 아프더니 오늘은 코가 아프지 않습니다.”

마조 선사께서는 백장 스님의 눈이 열린 것을 아시고 운집공을 지게 하니, 몇 백 명 대중이 모두 법당에 모였습니다. 조실스님이 법상에 올라 좌정(坐定)하고 있는 차에 백장 스님이 맨 나중에 들어오더니, 대뜸 법당 마루에 깔아놓은 찻하는 배척자리를 돌돌 말아 어깨에 메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러자 마조 선사께서 즉시 법상에서 내려와 조실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시회대중은 마조 도인과 백장 시자를 알겠는가? 마조 도인이 좌정하고 있는데 백장 스님이 배척자리를 말아 메고 나간 이 도리를 알겠는가?

용수불개전제현(龍袖拂開全體現)이요 수미도탁반공중(須彌倒卓半空中)이로다

5면으로 이어짐

# “일백가지 풀끝에 불법의 진리 아님이 없습니다”

어의(衛衣) 소매를 떨치는데 전체가 드러남이요 수미산이 허공 중간에 거꾸로 꽃필이로다

부처님 출세 이후로 무수 도인이 나왔지만 재가자(在家者)로서 온가족이 경성한 것은 방거사 일가족뿐입니다.

당시에 중국에는 위대한 마조 선사와 석두 선사가 쌍벽을 이루어 선법(禪法)을 크게 선양하고 있었습니다.

방거사가 하루는 ‘나도 불법의 진리의 도를 깨달아야겠다.’는 작심을 하고, 큰 신심을 발하여 두 분 도인을 친견하러 길을 떠났습니니다. 그리하여 석두 도인 처소에 다다라 예삼배(禮三拜)를 올리고는,

“선사님께 한 가지 물고자 합니다. 만 가지 진리의 법과 더불어 벗을 삼지 아니한 자, 이 누구입니까?”

하고 아주 고준(高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석두 도인께서는 묻는 방거사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입을 틀어막는 여기에서 방거사의 진리의 눈이 펴부라 열렸습니다.

방거사는 석두 도인에게 큰절을 올리고 그 곁으로 다시 마조 도인을 친견하러 갔습니니다. 마조 도인 처소에 이르러 예삼배를 올리고는,

“만 가지 진리의 법과 더불어 벗을 삼지 아니한 자, 이 누구입니까?” 하고 종전과 똑같이 물었습니다. 이에 마조 도인은,

“네 입으로 서강수(西江水) 물을 마셔 다해 올 것 같으면 그대를 향해 일러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방거사는 이 한 마디에 진리의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 후로 집에 돌아와서 조상대대로 내려온 가보(家寶)와 모든 재산을 마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 주고, 개울가에 조그만 떼집을 짓고 산속으로 조리를 만들어 팔며 온가족이 참선정진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방거사의 딸과 마누라까지, 온가족이 다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방거사가 딸 영조에게 한 마디 던지기를,

“일백 가지 풀끝에 불법의 진리 아님이 없구나.” 하니 영조가 받아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백발이 되고 이빨이 누렇게 속 수도(修道)를 하시고도 그러한 소견밖에 짓지 못하십니까?”

“너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백 가지 풀끝에 불법의 진리 아님이 없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대답했지만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대중은 영조의 낙처(落處)를 바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루는 방거사가 출타 중인데 단하천연 도인이 방거사를 찾아왔습니다. 사람문 앞에 이르니, 마침 방거사 딸 영조가 우물가에서 채소를 씻고 있었습니다.

단하천연 도인이, “거사 있느냐?”

하니 영조가 채소를 씻다가 일어서서 정중히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서 있었습니다. 천연 도인이 재차

“거사 있느냐?” 하고 물으니, 영조가 올렸던 손을 내리고 채소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집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에 단하천연 도인은 즉시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대중은 알겠는가? 단하천연 도인이 “거사 있느냐?” 하는데 영조는 어떻게 가슴에 손을 얹고 서 있으며, 단하천연 도인이 척 아시고 다시 “거사 있느냐?” 하는데 영조는 어떻게 손을 내리고 채소 바구니를 이고 집안으로 들어가 버렸느냐?

영조가 손을 얹고 서 있는 것과 채소 바구니를 이고 집안으로 들어가 버린, 이것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보지 못하면 부처님의 진리의 법과는 거

다 들어있습니니다. 하루는 방거사가 방 안에서 좌복에 앉아 있다가 딸 영조가 들어오니, 딸을 보고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정오에 이 몸을 벗고 열반에 들리니, 네가 밖에 나가 정오가 되었는지 해를 보고 오너라.”

영조가 밖에 나가다 들어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일식이 되어서 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 그럼 내가 나가서 한번 보지.” 방거사가 밖에 나간 사이에 영조는 아버지 좌복 위에 앉아 잠나지간에 예지중지하는 이 몸통이를 벗어버리고 열반에 들었습니다.

방거사가 들어와서 보고는, “장하다 내 딸이여! 너의 시신을 화장하기 위해서 나는 천성 일주일을 연기해야 되겠다.”

하셨습니다. 밖에 나갔다 오는 사이, 그 잠나지간에 예척의 주머니를 벗고 열반에 들었으니 장하다 아니할 수 없지요.

방거사는 일주일 후, 딸의 시신을 화장해 마치고 마누라 보살에게 간다 온다는 말도 없이 좌복에 앉아 열반에 들었습니다.

이웃 노보살이 방거사 집을 찾아왔다가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어 방문을 열어보니, 방거사는 좌복 위에 앉은 채로 열반에 들어 있었습니다. 노보살이 밭에서 풀을 매고 있는 방거사 마누라 보살에게 달려가서,

“거사님이 열반에 드신 것 같네.”

하니 방거사 마누라 보살은 한 손으로는 풀을 잡아당기고 한 손으로는 호미로 땅을 파는 자세로 이 몸통이를 벗어버렸습니다.



개달음에는 차별이 없다. 확고 부동한 수행이 필요할 뿐. 사진은 포행하는 진제 스님. 사진제공=해운정사

## 멋지게 살다가 열반한 방거사 일가족처럼 누구나 참선정진 잘하면 자유자재 경지 도달

리가 멀고 멀이로다. 영조는 여자의 몸으로서 부처님의 진리의 대도를 깨달아 이렇게 고준한 법을 쓸 줄 알았습니다. 천불(千佛) 만조사(萬祖師)와 더불어 조금도 다름이 없이 고준한 법을 자제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루는 방거사 일가족이 초가집 방에서 쉬던 차에 방거사가 누웠다가 앉으면서 한마디 던지기를,

“어렵고 어려움이여! 높은 나무 위에 백 석이나 되는 기름을 퍼는 것과 같구나.”

“어렵고 어려움이여! 높은 나무 위에 백 석이나 되는 기름을 퍼는 것과 같구나.” 한 것은 어떠한 진리의 한 모퉁이를 드러내 보인 것이며, 방거사 마누라 보살이 말한 “쉽고 쉬움이여! 일백 가지 풀끝에 불법의 진리 아님이 없구나.” 한 것은 또 어떠한 진리의 한 모퉁이를 드러낸 것이며, 방거사 딸 영조가 말한 “어렵지도 아니하고 쉽지도 아니함이여! 곤한 죽은 잠자고 목마른 죽은 차를

방거사 일가족의 이 세 마디에 부처님의 49년 설법이

이 열리면, 이와 같이 멋지게 살다 멋지게 열반에 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모든 대중들도 방거사 일가족과 같이 대자유인이 되려면, 참선정진을 잘 해서 바른 안목이 열려야 됩니다. 모든 도인과 더불어 지혜의 보검을 자제하게 쓰는 그러한 지력이 있어야만 이렇게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거사가 마지막으로 하신 법문, “어렵고 어려움이여! 높은 나무 위에 백 석이나 되는 기름을 퍼는 것과 같구나.” 한 것은 어떠한 진리의 한 모퉁이를 드러내 보인 것이며, 방거사 마누라 보살이 말한 “쉽고 쉬움이여! 일백 가지 풀끝에 불법의 진리 아님이 없구나.” 한 것은 또 어떠한 진리의 한 모퉁이를 드러낸 것이며, 방거사 딸 영조가 말한 “어렵지도 아니하고 쉽지도 아니함이여! 곤한 죽은 잠자고 목마른 죽은 차를

방거사 일가족의 이 세 마디에 부처님의 49년 설법이

6면으로 이어짐



선(禪)은 일체의 집착을 벗어나 무애자재를 궁극으로 한다. 사진은 범어사 설선대법회에서 법문을 경청하는 현대불교 자료사진

## “어떤 것이 가장 높고 깊은 진리입니까?” “높고 깊은 진리? 귀신 방귀에 털이 났지”

선사께서 벌떡 일어나 무사의 등을 치며 소리쳤습니니다. “내 칼 받아라!”

순간 당황한 무사는 칼을 거두고 해월 선사께 큰 절로써 예를 올리며,

“과연 위대하십니까.” 하고는 돌아갔습니니다. 남카로운 지혜의 기봉(機鋒)을 갖춘 선사가 아니고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석화전광(石火電光)과 같은 기틀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해월 선사께서 그 상황에서 두려워했다거나 마음에 공포심이 일어났던들, 선사의 목은 즉시 떨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수행을 하여 지혜의 보검을 잘 연마하면 해월 선사와 같이 이처럼 멋지게 보검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선사께서 노령(老齡)에는 황시 뒷산에 올라가 자루에다 솔방울을 가득 주워 담아 짙어지고 내려오시곤 했습니다. 하루는 산을 내려오다 잠시 쉬시던 바위에서 솔방

5면으로 이어짐